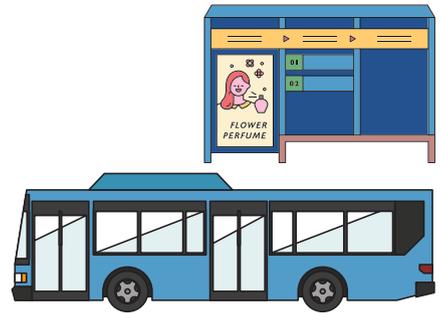


간편한소식 타임즈

「간편한 소식 타임즈」는 6월 한 달간 일간지에 나온 사회 이슈를 편하고 보기 쉽게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광주서 철거 중 건물 붕괴, 버스 덮쳐...9명 사망·8명 중상

광주에서 철거작업 중이던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되면서 달리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은 대형 참사가 났다. 현장에서 수색작업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광주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을 실시하고 공사현장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안전 규정 준수와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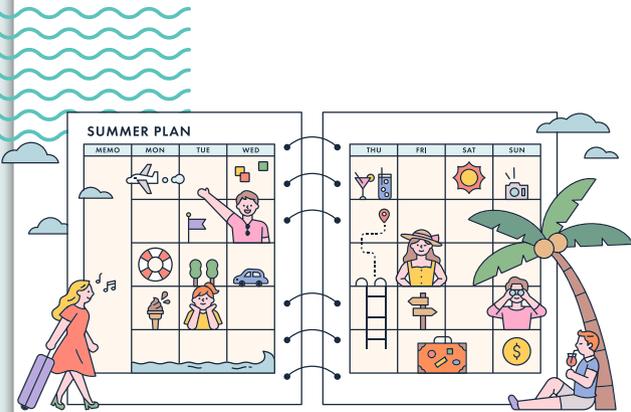


백신 접종 마치면 해외여행... 7월부터 단계적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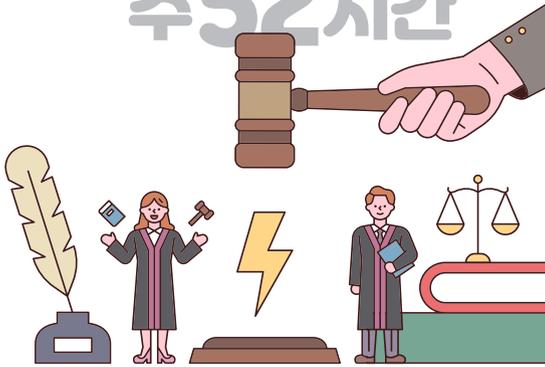
코로나 대유행으로 1년 넘게 사실상 닫혔던 하늘길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백신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방역 신뢰도가 높은 국가에 단체 여행을 가면 도착 후 일정 기간 격리하는 조치를 면제해주는 이른바 '트래블 버블(여행 안전 권역)' 정책을 추진한다고 6월 9일 밝혔다.

내 '택지조사 업무' 국토부 이관...조직개편은 빠져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부 기능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으로 이관하고, 전체 직원의 20%(2,000명)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경영 재평가에 따른 성과급 환수, 간부급 직원의 3년간 임금동결, 취업제한 확대 및 전관특혜 폐지 등도 추진된다. 지주사 전환 등이 거론되던 조직개편안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주52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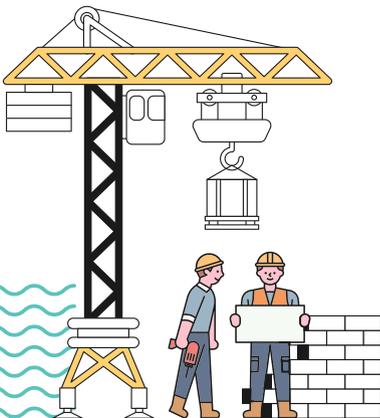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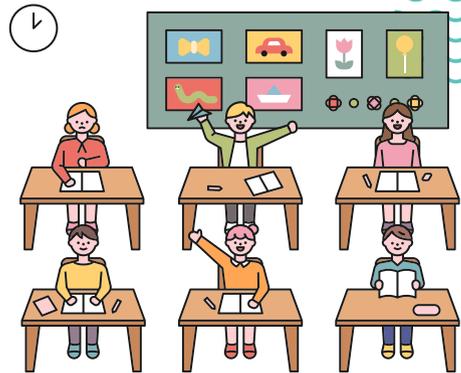


영세기업들 '주52시간 시행' 7월이 두렵다

오는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80만 2,000개다. 현 정부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며 5~49인 사업장에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하지만 유예기간 동안 상황은 더 악화됐다는 게 중소·벤처기업의 지적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다 최근엔 코로나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마저 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접종률 26% 1등 전남 오늘부터 초·중고 전면 등교

전남 지역 학교들이 7일부터 전면 등교 수업을 한다. 교육부는 확진자 수 안정, 높은 백신 접종률 등의 조건이 갖춰지면 전면 등교 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고 6월 6일 밝혔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822개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 20만 3,000명이 6월 7일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3월 1일부터 원격 및 부분 등교 수업을 반복한 지 15개월 만이다. 세종시와 대구시는 올 초부터 전면 등교를 시행하고 있다.



퇴출된 타워크레인, 정밀검증 없이 현장 복귀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작 결함으로 건설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사업 현장에서 퇴출된 소형 타워크레인 기종이 등록 말소 두 달 만에 신규 장비로 다시 등록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관행과 달리 재등록 과정에서는 건설기계 결함 등 안전도를 평가하는 정부 공식 심의기구의 심의도 건너뛰어 '부실 검증' 논란이 있다.